

### 4·11 총선 광주·전남 대진표 '윤곽'

# '민주 대 무소속' 사활전 혈투 예고

4·11 총선에 대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새누리당 등 주요 정당들의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광주·전남지역 총선 대진표의 윤곽도 대부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 출마가 줄을 이으면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 후보의 거센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19개 선거구에 모두 76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천

## 공천 반발 후보 대거 무소속 출마 일부선 진보당·새누리당 도전도

을 받아 평균 경쟁률은 4대1이었다. 여기에 8~10명의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 중이거나 공천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어 오는 22~23일 실제 후보 등록시에는 경쟁률이 4.5대 1 정도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현재 민주당은 이 지역에 15명의 공천자를 확정하고 향후 경선을 통해 2명을 추가 공천할 예정이다. 공천을 하지 않은 2개 지역은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광주 동구와 아권연대 지역인 서구들이

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날까지 10명을 공천했으며 예비후보 등록자 1명 등을 포함, 추가 공천을 검토 중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무소속 출마자는 이날까지 32명이나 된다. 특히 8명의 민주당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심각히 검토 중이어서 무소속 출마자는 4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진보당도 모두 15명을 공천했으며 진보신당과 창조한국당이 각 1명씩 공천했다.



**근로정신대 지원조례 통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소속의 한 할머니가 15일 광주시의회를 찾아 윤봉근 의장 등에게 어자근로정신대 지원조례를 통과시켜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담은 꽃을 전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송파을 천정배·영등포을 신경민·송파갑 전현희

**민주통합당 전략공천** 민주통합당은 15일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 을에 신경민 대변인을, 송파 갑과 을 지역구에 전현희·천정배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 민주당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금품 논란에 휩싸인 전혜숙·이화영 후보는 공천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동영(강남구 을) 상임고문, 이혁진(서초구 갑) 에스케이티스자산운용 대표, 임지아(서초구 을) 변호사, 전현희(송파구 갑) 의원, 천정배(송파구 을) 전 최고위원, 정경환(송파구 병) 전 의원으로 이어지는 강남벨트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다만, 강남구 갑은 새누리당에서 박상일 한국벤처기업협회 부회장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만큼 새누리당의 공천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광진구 갑 후보로는 김한길 전 원내대표를 확정했고 이어 강원동해시와 삼척시는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또 경기 군포시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이화영 전 YMCA 사무처장에게 밀린 안규백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에 공천했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

**동구 무소속 5명 출마** 민주당이 일찌감치 무공천 지역으로 선정한 동구에는 양정일·이병훈·김강열·박현·박동수 후보 등 5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여기에 현역인 박주선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김관희 후보가 사실상 공천을 받았다.

**서구갑 민주 여성후보 경선** 서구갑은 민주당이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혜자 전 전남도 여성복지국장 경선을 통해 후보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현역 조영택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아쉽게 경선에서 배제된 송갑석 전 전대협 의장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어서 민주당 대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정용화 후보도 오랜 기간 표밭을 누비고 있으며 새누리당에서는 성용재, 통합진보당에서는 정호 후보가 각각 공천을 받았다.

**서구를 아권연대 통할까** 서구에서는 아권연대 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운 전 민노당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여기에 현역인 김영진 의원이 6선 도전을 위해 무소속 출마를 고려 중이며 정남준·서대석·예비후보도 무소속으로 나섰다. 김이강 후보도 출마를 검토 중이다.

## 남구 장병완 재선 도전

남구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장병완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 노덕민 예비후보가 공천을 노리고 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이민원 전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나섰으며 무소속으로 김종배·강도석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북구갑 무소속 출마 잇따라** 민주당에서 강기정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선 북구갑에서는 경선 전 컷오프된 김경진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임현모 전 광주교육대 총장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재연 전남대 교수가 공천을 받았다.

**북구를 무소속 출마 러시** 북구을의 경우 임내현 변호사가 경선 관문을 통과, 민주당 후보가 됐으며 이에 김재균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일전을 벌이게 됐다.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이상동 전 광주시의원도 호시탐탐 출마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진보당에서 윤민호, 진보신당 안영돈 후보가 각각 도전장을 던졌다.

**광산갑 김동철 3선 도전** 광산구갑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김동철 의원이 3선 도전에 맞서 통합진보당 장원섭 사무총장이 나섰다. 여기에 무소속 김영성 후보도 표밭을 다지고 있다.

## 광산을 이용섭·황차은 대결

광산구을의 경우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위원과 통합진보당 후보인 황차은 행복한에별레 광주생협이사장이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 순천곡성 민주·진보 대결

순천·곡성에서는 경선 관문을 통과하며 민주당 공천을 확정받은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현역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과의 치열한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정재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 나주화순 최인기 무소속 출마

현역 재선인 최인기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나주·화순에서는 무소속으로 방향을 튼 최 의원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배기운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 도전자로 나섰다. 통합진보당 후보인 전중택 전 전남도의원과 전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 직무대리를 지낸 새누리당 문종안 후보도 이들과 대결을 펼치게 됐다.

## 장흥강진영암 5명 표밭갈이

장흥·강진·영암에는 3선 강진군수 출신의 민주당 황주홍 후보에 맞서 컷오프된 장흥 출신의 김명진 전 교육방송 부사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며 유인학 전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박형기, 새누리당에서는 전평진 후보가 각각 공천을 받았다.

## 해남완도진도 지역간 혈전

해남·완도·진도의 경우 민주당 공천을 받은 완도 출신 현역 김영록 의원에 대항해 해남 출신의 무소속 김홍철·민병록·양동주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로 했다. 지역간 혈전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명목재 후보와 무소속의 이영호 전 의원이 경쟁에 동참했다.

## 무안신안 이윤석 한화갑 대결

무안·신안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윤석 의원과 평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전 의원이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 함·영·장·담 이낙연 독주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는 4선을 노리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이상선 후보, 통합진보당에서 김동주 후보가 각각 공천을 받아 도전장을 던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

## 목포 박지원 아성 깎까

목포에서는 단수후보로 일찌감치 공천을 받은 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과 통합진보당 윤소하 후보, 민주당 컷오프 탈락 후 무소속으로 나선 배종호 후보 간 3자 대결이 벌어진다.

## 여수갑 8명 후보 난립

여수갑에서는 3선의 민주당 김성곤 의원에 맞서 5선의 김충호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도전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중대 당 해양수산분과위원장 부위원장, 통합진보당 강용주 전 여수시의원도 도전 대열에 합류했다. 이 외에도 창조한국당 한성무, 무소속 박종수·김동진·김철주 예비후보 등 모두 8명의 후보가 총선 표밭을 누비고 있다.

## 여수를 주승용 3선 통과할까

여수을의 경우 3선에 도전하는 주승용 의원이 일찌감치 민주당 공천 확정을 받은 가운데 무소속으로 해군 중령 출신의 김성훈 후보가 도전장을 던져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영남 후보가 공천을 확정지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장비,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함께하는 고객중심의 진장검진기관입니다

검진시간 08:00~17:00 [토요일 정상근무 12:00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전화 예약 062) 363-4040 인터넷 예약 gwangju.kahp.or.kr